

녹색 부흥 프로젝트

미야기



동일본대지진의 지진 및 그 후의 쓰나미로 인해 미야기현 연안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재산을 잃었고, 자연환경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년이 지나 잔해 철거와 복구 사업은 상당히 진척되었지만, 지역의 본격적인 부흥은 아직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미야기현에서는 환경성이 추진하는 '산리쿠 부흥 국립공원 창설을 핵심으로 한 녹색 부흥 비전'의 구체적인 일곱 가지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국내외, 특히 외국에서 피해지역으로의 방문을 증가시켜서 부흥을 가속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지역의 의견 청취나 전문가 회의의 토론 내용을 근거로 미야기현 연안지역에서의 프로젝트의 전개 방향을 검토하고 정리하여, '녹색 부흥 프로젝트 미야기'라는 이름으로 국가와 관련 지역에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팸플릿에서는 '녹색 부흥 프로젝트 미야기'의 전개 이미지를 전달함과 동시에, 미야기현 연안지역의 매력과 부흥 대책 상황 등을 소개합니다. 피해지역의 현재 모습을 알고 부흥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라도 꼭 미야기현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 부흥 프로젝트 이야기

자연공원 재편성과 새로운 체계 만들기

리아스식으로 복잡하게 얽힌 해안지형과 앞바다 부근에 떠있는 크고 작은 섬들로 구성된 경관은, 리쿠추 해안국립공원 남부를 잇는 미야기현 연안지역 4곳의 자연공원에서 볼 수 있는 공통된 특징입니다. 이 지역의 작은 후미나 만 안쪽에는 작고 높은 산을 배경으로 촌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촌락에서는 앞쪽에 펼쳐진 풍요로운 바다의 혜택을 입은 사람들의 생활이 자연공원과 일체가 되어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번 지진은 이 지역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은 높은 곳에 새로운 생활장소를 찾아 바다와 함께하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산리쿠 부흥 국립공원이 지향하는 '숲·촌락·강·바다가 키워내는 자연과 함께 하는 부흥'은 이 지역이기에 실현시키고 싶은 테마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연공원 4곳을 산리쿠 부흥 국립공원으로 편입시키고, 뒤쪽 산에서 해안, 해역까지의 작은 유역을 묶어 일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원구역 지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화와 후계자부족으로 고민하는 지역에서는 국립공원으로서의 이용 촉진이 국내외 사람들과의 교류·연대를 만들며, 나아가 지역 고용 및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필드 뮤지엄 정비와 에코투어리즘 추진

미야기현 연안지역에서는 바다로 돌출한 반도와 바다를 감싸 안은 만, 해상의 섬들, 만 안쪽에서 흘러 나오는 강이 일체가 되어 숲, 촌락, 강, 바다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가 간결하게 통합된 지역은 자연공원 구역 내외를 막론하고, 에코 투어리즘이나 환경교육 필드로 적극 활용하여 필드 뮤지엄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검토해야 합니다.

가라쿠와 반도·게센누마 오시마 섬 지구, 도구라 반도·오키나쿠라야마 산·기타카미 강 하구 지구, 오시카 반도·긴카산·아지시마 섬·다시로지마 섬 지구, 우라토 제도·미야토지마 섬 지구의 4곳이 그 후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지구에서는 어업 체험, 숲 관리 체험, 강이나 바다에서 카누 체험, 호수에서 철새와 연어 관찰, 스노클링 등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미치노쿠 해안 트레일의 단계적 정비와 활용

미야기현 오시카반도 이남의 연안지역에는 긴카산으로 가는 참배길이었던 긴카산도와 고대의 행정도로(간선도로)였던 도산도, 마쓰오 바쇼가 지나갔다는 오쿠노호 소미치길 등 역사적인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의 대부분은 이번만이 아니라 과거의 큰 쓰나미에도 타격을 입지 않아, 연도에는 많은 역사적 자원이 남아 있습니다. 비교적 내륙 쪽에 위치하여 안전하고 피해도 적은 이곳의 역사적 길을 장거리 트레일로 새로이 재생·활용해서 이용 촉진 이벤트 등을 개최, 가까운 지역과의 제휴를 도모하면서 화제를 조성해 나가기에 매우 유효합니다. 또한, 장래에는 해안부에 정비될 새로운 거점이나 관광 명소를 순화하는 주류 루트, 섬들을 돌아보는 바다 루트를 확보하는 등 지역 부흥사업 진척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북부 지역에서는 비교적 안전한 기존에 있던 해안 길을 간선도로로 해서, 해안의 전망을 즐기는 산 루트, 촌락의 생활이나 문화를 접하는 촌락 루트 등을 지선으로 만들어, 계절에 따른 이용이나 여러 번 방문하는 사람에게도 대응할 수 있는 루트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점 시설 정비와 네트워크

미야기현 연안지역에 국내외의 많은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 발신과 수용 체제 확보가 필요합니다. 산리쿠 부흥 국립공원의 남쪽 현관에 위치한 마쓰시마 지구에 종합 인포메이션 센터를 설치하여, 산리쿠 부흥 국립공원만이 아니라 필드 뮤지엄 및 도호쿠 해안 트레일 이용, 일반 관광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미야기현 내의 교통의 기점인 센다이역, 센다이 공항, 휴게소 등 기존 안내시설과의 제휴도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인 방문객 대응을 위한 많은 외국어 정보제공 시스템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필드 뮤지엄에서 에코 투어리즘이나 환경교육의 활동거점이 될 센터 시설이나 도호쿠 해안 트레일 이용자를 위한 정보 제공·휴식장소가 될 트레일 센터 등의 거점시설을 적절한 위치에 정비하여, 각 거점시설 및 인포메이션 센터가 서로 제휴를 통해 적절한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산리쿠 부흥 국립공원 창설을 핵심으로 한 녹색 부흥 비전'이란

환경성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에서 벗어나 다시금 부흥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2012년 5월에 '산리쿠 부흥 국립공원 창설을 핵심으로 한 녹색 부흥 비전'을 책정했습니다. 비전에서는 숲·촌락·강·바다와 함께 해 온 자연환경과 지역 생활을 후세에 전하고, 자연의 혜택과 위협을 배우며 그것을 활용하면서 부흥해 나갈 것을 제창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산리쿠 부흥 국립공원 창설을 필두로 하는 7가지 프로젝트를 내걸고,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 부흥에 공헌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하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env.go.jp/jishin/park-sanriku/>



미야기의 볼거리 소개

바다와 산으로 둘러싸인 미야기의 자연과, 풍요로운 환경에서 나온 음식과 문화 등 갖가지 매력을 소개합니다. 미야기현에서는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녹색 부흥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계

【미야기의 볼거리】

【미야기의 먹거리】

시오가마 · 다가성
시오가마 신사나 다가성 유적 등 역사의 향이 풍기는 지역. 활기가 넘치는 어시장과 신선한 해산물로 만든 초밥도.

센다이만 연안
하구부는 갯벌이 발달하여 물새가 찾아온다. 센다이만 연고로 역사자료도 풍부. 농지나 어항의 복구에 따라 각지에서 시장도 영업을 개시.

마쓰시마 · 오키마쓰시마
마쓰시마 만에 떠있는 섬들이 자아낸 절경은 일본 3경 중 하나. 고다이도 등의 역사와 굴 등의 특산물도 즐길 수 있다.

게센누마
오레이시 등으로 유명한 가라쿠와 반도와 오시마 등, 복잡한 해안미가 볼거리. 부흥 상점가나 시장건축도 매력.

미나미산리쿠
가미와리곶을 대표로 경승지가 이어진다. 어업체험, 가타리베 가이드 등 체험형 활동도 활발하다.

이시노마키 · 오나가와
전형적인 리아스식 해안미를 자랑하는 오시카 반도, 옛날부터 서민의 신앙으로서 모셔져 온 긴카산, 조용히 흐르는 기타카미강 등 변화가 풍부한 경관이 매력.

볼거리: 시오가마시 어시장, 시오가마 신사, 다케코마 신사, 시즈가와만, 어업체험, 가미와리곶, 마을숲, 에코투어

먹거리: 게센누마 오시마 섬, 콩치, 멍게, 성계덮밥, 오시카, 가리비, 긴카 고등어, 오나가와, 이시노마키, 히가시마쓰시마, 시오가마, 술, 초밥(참치), 이시노마키, 시오가마, 규탄(우설), 센다이, 유리아게, 와타리, 야마모토, 사과, 함박조개밥, 피조개, 딸기, 말기, 사과

자연: 오가마·한조(오레이시), 게센누마 오시마 섬, 도쿠센조산, 가미와리곶, 시즈가와만, 마쓰시마의 섬들(오타카모리에서), 마쓰시마 고다이도, 쓰키노우라, 기타카미강의 갈대밭

공원: 마쓰시마 고다이도

트레일: 쓰키노우라

기타: 시오가마 신사, 다가성 유적, 시오가마, 술, 초밥(참치), 이시노마키, 히가시마쓰시마, 시오가마, 규탄(우설), 센다이, 유리아게, 와타리, 야마모토, 사과, 함박조개밥, 피조개, 딸기, 말기, 사과

미치노쿠 해안 트레일 예상루트

미야기 부흥 응원 관광 모델 코스



미야기현 연안부를 방문해, 지역에서 나는 제철의 미각을 먹고, 지역에서 쇼핑을 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해 보는 일이 곧 부흥으로 연결됩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지진 재해에 관한 이야기를 전하는 가타리베가 활동 중이며, 또한 가타리베에 의한 가이드프로그램도 운영 중이오니 꼭 미야기현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델 코스① '미나미산리쿠 해안·오사카 반도' (1박2일)

센다이 또는 이치노세키
▼ 자동차

- 시오후키와(이와이사키)
- 지진피해를 입은 용 모양의 소나무

【문의】게센누마 관광 컨벤션 협회
TEL 0226-22-4560
http://www.k-macs.ne.jp/~k-kanko/index.html

▼ 자동차 또는 BRT

- 가타리베의 학습 프로그램
- 해초 압착 강좌 [숙박]

【문의】미나미산리쿠초 관광협회
TEL 0226-47-2550
http://www.m-kankou.jp/

▼ 자동차

- 마린파루 오나가와
- 사사카마 구이 체험

【문의】오나가와초 관광협회
TEL 0225-54-4328
http://www.onagawa.org

▼ 자동차
센다이

모델 코스② '마쓰시마 만' (1박2일)

센다이
▼ 자동차 또는 전차

- 시오가마 관광(시오가마 신사, 어시장)
- 초밥 등

【문의】시오가마 관광물산협회
TEL 022-364-1165
http://kankoubussan.shiogama.miyagi.jp/

▼ 자동차 또는 전차 또는 유람선

- 마쓰시마 관광
- 고다이도, 조이간지 절 [숙박]

【문의】마쓰시마 관광협회
TEL 022-354-2618
http://www.matsushima-kanko.com/

▼ 자동차 또는 대형버스와 자동차

- 오쿠마쓰시마의 어업체험

【문의】히가시마쓰시마시 관광물산협회
TEL 0225-87-2322
http://www.okumatsushima-kanko.jp/

▼ 자동차와 전차
센다이

모델 코스③ '센다이 만 남부 연안' (1일)

센다이
▼ 자동차와 전차

- 유리아게 사이카이 시장
- 지진 가타리베 택시

【문의】미야기현 택시협회 센다이지구 총지부
TEL 022-256-0356
http://sentakyo.org/

▼ 자동차와 전차

- 다케코마 신사 ●가나해비스이 신사

【문의】이와누마시 시민경제부 상공관광과
TEL 0223-22-1111
http://www.city.iwanuma.miyagi.jp/

▼ 자동차 또는 전차

- 딸기 따기
- 언어 알밥, 함박조개밥

【문의】와타리초 관광협회
TEL 0223-34-0513
http://www.datenawatari.jp/index.php

▼ 자동차 또는 전차
센다이

부흥 상점가, 성황리에 영업 중!

미야기현 연안지역의 피해지에서도 토착 산업 및 관광 산업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지에서 가설 부흥 상점가와 먹거리 골목이 영업을 시작해, 지역 주민이나 부흥 관련 종사자들, 자원봉사자, 관광객들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부흥 포장마차 마을 게센누마요코초

미나미산리쿠초 이사토마에 핫코 상점가

지진 후 2주만에 재개한 유리아게미나토 아침시장

피해지역의 현재와 전망



자연의 변화와 재생

미야기현 연안지역의 자연환경은 이번 지진으로 발생한 쓰나미와 지반침하의 영향을 받아 심각한 혼란이 발생했고, 현재도 여전히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간석지와 해변, 모래톱, 하구의 갈대밭, 천해역의 잘피밭 등이 쓰나미로 인한 토사 유출과 지반침하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그곳에 살던 생물 또한 토사와 함께 유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적게나마 남아있는 간석지와 해변이 저생생물과 해변성 생물 등의 피난처가 되어, 이후 간석지·해변이 다시 형성됐을 때는 생물의 공급원이 될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미야기현 연안지역에 집단으로 날아오는 기러기·오리와 도요새·물떼새 등의 철새는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지진 후에도 날아오고 있으며, 많은 하천에서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지진 다발 지대로 지금까지도 몇 번이나 쓰나미와 지반침하로 발생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자연환경이 이와 같은 큰 혼란 속에서 형성되어 왔듯이, 앞으로도 꾸준히 재생되어 나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재생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앞으로도 오랜 시간에 걸쳐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해 전 모습을 되찾아가는 가모우 간석지 (위 2011년 3월 14일 촬영, 아래 2012년 4월 10일 촬영)



재해 후에 기타가미강 하구로 날아온 흑기러기 (촬영: 사사키 시게미)



부흥을 향한 지역의 대처

피해 직후에는 중지할 수 밖에 없었던 각지의 전통 축제도 점차 지역 주민들에 의해 부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나미 때문에 잃어버렸던 해안림과 신사 숲의 재생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지원도 받으면서 묘목을 키우고 나무를 심는 등 장기간에 걸친 착실한 활동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번 재해의 교훈을 내외에 널리 전달하기 위해 방재 이벤트 등도 열고 있습니다.



게센누마 미나토 축제



이시노마키 대어 축제



시치가하마 해변국화 나무심기 자원봉사



칼럼 피해를 면한 신사와 역사적 가도

이번 피해지역에서 해안선 근방에 있는 신사는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쓰나미 피해를 면했으며, 지진 직후에는 신사나 경내가 일시적으로 피난처로 이용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주민들은 몇 세대에 걸쳐 살아오는 동안 때때로 큰 쓰나미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과거의 주민이 자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신사를 세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센다이 평야 곳곳에는 고대의 행정도로(간선도로)와 고대 시조의 소재가 된 사적 등 역사적 유산이 많이 있었지만, 이번 쓰나미도 그곳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센다이 평야는 400~500년마다 큰 쓰나미의 피해를 입어, 역사적 가도는 과거의 침수 지역을 피해 정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의 교훈을 미래에 전해줘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 발생 이래, 미야기현 내의 재해 자원봉사자 센터를 통해 활동한 자원봉사자의 수가 2012년 12월 31일 현재 총 5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 내의 피해지역에서는 잔해 철거나 가옥으로 흘러 들어온 진흙을 제거하는 작업, 구호물자 배부 및 해안 표착물 청소, 나아가 피해 주민의 심리치료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서 국내외의 많은 지원과 도움을 받았습니다.

세계 각국·지역에서도 수 많은 응원 메시지, 의연금과 기부, 지원물자를 제공받았습니다. 피해지역으로 직접 전문 지원팀을 파견해준 국가도 많았습니다. 2011년 9월 30일 현재 외무성이 발표한 자료만 봐도, 16개국과 지역의 지원팀이 미야기현 내의 피해지역을 찾았습니다. 지진 다음날부터 대규모 구조대를 파견한 한국팀은 센다이시 등에서 열심히 구조·수색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만, 몽골팀은 나토리시, 이와누마시에서 활동했습니다. 러시아 구조팀은 이시노마키시, 호주, 남아프리카, 터키 등의 팀은 미나미산리쿠초, 이시노마키시, 다카조시 등의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의료지원팀은 미나미산리쿠초에서 진료소를 개설했으며, 가지고 온 의료기재를 미나미산리쿠초의 의료 부흥을 위해 기증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에게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부흥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되지만, 부디 오래도록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피해지역을 꼭 다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의 의연금으로 수리한 후쿠우라바시 (마쓰시마)



호주 대사관이 미나미산리쿠초 부흥시장에 낸 가게



이스라엘 의료지원팀의 진료 상황

교통 ■센다이까지의 소요시간

| 구간 | 소요시간 |
|------------------|-----------|
| JR | |
| 도쿄 - 센다이(도호쿠신칸센) | 약 1시간 36분 |
| 항공편 | |
| 삿포로(신치토세) - 센다이 | 약 1시간 5분 |
| 나고야(주부) - 센다이 | 약 1시간 10분 |
| 고마쓰 - 센다이 | 약 1시간 |
| 오사카(이타미) - 센다이 | 약 1시간 15분 |
| 히로시마 - 센다이 | 약 1시간 25분 |
| 후쿠오카 - 센다이 | 약 1시간 45분 |



미야기현 환경생활부 자연보호과

〒980-8570 미야기현 센다이시 아오바구 혼초 3초메 8번 1호 Tel: 022-211-2672

<http://www.pref.miyagi.jp/soshiki/sizenhogo/>

사진제공 : 사사키 시게미, 외무성, 미야기현

발행 : 2013년 3월